

일회용 플라스틱 컵 투기 ‘환경오염 심각’

익산시내 주요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및 음료 등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주범이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개강과 최근 화창해지면서 커피, 음료 등을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거리로 들고 나온 상당수 시민들은 음료를 다 마신 뒤 종량제가 시행된 뒤 쓰레기를 분리해 버릴 수 있는 별도의 쓰레기통이 없어 거리 곳곳에 버려지고 있다.



지난 주말 늦은 점심 익산시 신동 대학로 인근 거리를 찾았다. 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앞에는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한 손에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거리로 나서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마땅히 버릴 곳이 없자 거리 한 쪽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거리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컵들이 거리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버스 정류장 벤치와 공원 벤치 등에서도 음료를 다 마신 후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무분별하게 놓여 있었다. 대부분 이들 컵들은 규격이 모두 다르고 빨대, 컵, 컵 홀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익산시 신동에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5)씨는 “추운 겨울보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대학생들도 개강을 맞아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평일에는 100여명 정도의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익산시 전역에 걸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일회용 플라스틱 컵 투기 ‘환경오염 심각’

익산시내 주요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및 음료 등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주범이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개강과 최근 화창해지면서 커피, 음료 등을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거리로 들고 나온 상당수 시민들은 음료를 다 마신 뒤 종량제가 시행된 뒤 쓰레기를 분리해 버릴 수 있는 별도의 쓰레기통이 없어 거리 곳곳에 버려지고 있다.



지난 주말 늦은 점심 익산시 신동 대학로 인근 거리를 찾았다. 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앞에는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한 손에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거리로 나서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마땅히 버릴 곳이 없자 거리 한 쪽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거리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컵들이 거리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버스 정류장 벤치와 공원 벤치 등에서도 음료를 다 마신 후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무분별하게 놓여 있었다. 대부분 이들 컵들은 규격이 모두 다르고 빨대, 컵, 컵 홀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익산시 신동에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5)씨는 “추운 겨울보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대학생들도 개강을 맞아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평일에는 100여명 정도의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익산시 전역에 걸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